

리더의 언약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마태복음 16:24-27)

서론 (INTRODUCTION)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서 **리더로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나의 주님이자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사시고 이끄시며 사람들을 세우셨던 그 방식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리더로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며**,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존재하고 그리스도처럼 이끄는 삶**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참고: 이 언약에서 말하는 “리더”란 목사, 사도, 장로, 감독, 집사, 전도자, 교사, 선교사, 초교파 사역자, 예언자, 직장 사역 리더, 소그룹 리더, 교육자, 가정교회 리더 등 예수님처럼 이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남녀노소, 전임 사역자와 평신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1. 나는 예수님께 책임을 집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책임을 집니다. 그분은 나를 평가하시고 상 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 **섬김과 기쁨과 희생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큰 희생을 감수하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의 백성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일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 사람을 대하는 태도, 리더십 방식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그로써 이 땅에서의 보상을 이미 받아 버리는 모습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존귀히 여기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는 내가 이끄는 방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마 6:1-6; 마 16:24-27; 눅 18:28-30; 요 5:22-23; 고전 3:10-15; 고전 4:5; 고후 4:11-18; 고후 5:9-10; 고후 10:12-18; 딤후 4:1-8)

2.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리더십에 필수적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유지됩니다. 나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마음과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날 성적 유혹이 사방에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거룩함과 순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때때로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나 사역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여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마음과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 23:23-28; 요 15:1-5; 빌 1:15-17; 빌 3:17-19; 살전 2:1-12; 딤후 3:1-13; 딤후 2:11-15; 벰후 3:11-14; 요일 2:6)

3.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지도자들을 자기만의 “왕국”이나 “제국”을 세우는 쪽으로 이끅니다.

나는 일부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구하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명을 자기 자신 중심으로 바꾸는 모습을 슬퍼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 세워지도록 돕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나의 가족을 경건하게 돌보고 양육하는 부르심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 5:1-12; 행 28:30-31; 고후 4:1-2; 빌 2:19-23; 딤후 3:1-5; 벰후 2:1-3; 요삼 9-11)

4. 나는 예수님처럼 이끌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람들을 은혜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권위를 강요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이끄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유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기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 중심적 리더십 방식을 따르며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나는 일부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리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을 살지 않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리더십 가르침을 왜곡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는 겸손히 예수님처럼 이끄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 18:1-4; 마 23:1-12; 막 10:42-45; 고후 11:12-21; 딤후 3:1-13; 히 1:1-2; 벰전 5:1-5)

5. 나는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집중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남녀와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시간과 삶을 투자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 세계의 많은 젊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영적 멘토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성도들을 사역으로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을 세워 보내야 할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마음과 삶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은혜와 통찰을 구합니다.

(마 4:18-22; 마 28:16-20; 눅 6:12-16; 요 17:6-19; 행 11:22-26; 행 15:39-16:5; 엡 4:11-16; 빌 2:19-30; 딤후)

6.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과 의존함으로 그분을 찾고, 교제와 기도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요구와 압박,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로 교제하시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기도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를 그분의 뜻과 길에 더 깊이 일치하게 할 것임을 압니다.

또한 나는 안식과 쉼을 통해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때로 내가 세상의 압박에서 물러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혹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사 66:1-2; 마 14:23; 마 26:36-39; 막 1:35-39; 눅 4:42-43; 눅 5:16; 빌 4:5-7; 뱀전 5:6-8)

7. 나는 영적 열매를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열매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맺힌다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지혜나 압박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영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 자신을 내어 드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 7:15-20; 마 16:21-23; 요 15:1-11; 고전 3:5-9; 고후 1:12; 딤후 4:6-16; 요일 2:3-6)

8. 나는 협력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각 위격은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완전한 조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의 협력적 리더십은 상호 순종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나는 삼위일체께서 보여 주신 협력적 리더십을 모든 지도자들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는 동역하는 지도자들과 조화롭게 섬기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마 28:16-20; 요 5:22-23; 요 16:13-15; 요 17:21; 행 13:1-3; 롬 8:14-17)

9. 나는 재정을 신실하게 청지기처럼 관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행하셨습니다.

나는 일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역에 사용되는 재정에 대해 경건한 책임 구조를 두지 않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하나님 나라 섬김을 왜곡하고 많은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섬기는 공동체로부터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맡겨진 재정을 흠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마 6:25-34; 눅 16:14-15; 행 4:32-5:11; 행 6:1-7; 행 20:25-35; 고전 9:1-18; 고후 8:16-22; 딤후 6:9-11; 뱀전 5:2-3; 유 11-12)

10. 나는 새로운 부대를 사용하여 섬기겠습니다.

제도와 조직(“부대”)은 교회와 사역을 위한 청지기의 도구입니다. 나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 제도, 율법, 자격, 신학이라는 부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대신, 자기 자신이나 조직, 방법, 자료, 혹은 신학 체계에 묶어 두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통제와 지배를 위해 위계 구조와 직함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계획과 비전, 조직적 명령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일도 쉽게 일어납니다.

나는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이들을 그분과의 더 깊은 동행으로 이끌기를 갈망합니다.

(마 23:13-33; 요 11:47-48, 53; 행 20:18-35; 빌 2:19-21; 약 4:13-16; 뱀전 5:2-3; 요삼 9-11)

결론 (CONCLUSION)

나는 나보다 앞서 걸어간 지도자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나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바에 따라 이끌었고, 주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리더로서의 실패를 주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더 닮고 또한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세우는 삶에 나 자신을 겸손히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는 이 언약을 나의 개인적인 언약으로 삼습니다.

서명 _____ 증인 _____

날짜 _____ 증인 _____

이 성경 구절들을 따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를 다른 이들에게 배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 문서는 www.mentorlink.org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더의 언약은 **수정 없이 배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 MentorLink 2014.

이 리더의 언약은 1974년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케이프타운 세계복음화대회를 위한 로잔 리더십 개발 워킹그룹의 자료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편집 관련 의견이나 질문은 info@MentorLink.org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